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6월 7일(주일) 제1052호

2015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지난 2013년에 열린 카운트다운.

청년들을 위한 예배축제 ... 영적부흥과 쇄신 꿈꾼다 26~27일 양재 온누리교회, 28일 장충실내체육관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막 오른다. 6월 26일과 27일은 양재 온누리교회, 28일은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청년 세대의 영적부흥과 쇄신을 위해 열리는 축제다.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올해로 3번째다.

6월 26일에는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이 예배자가 된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청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27일에는 복음과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비전을 발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청년연합집회가 열린다.

명강사들과 게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병삼 목사(민나교회), 김요셉 목사(원전참례교회),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 손창남 선교사(OMF 선교사), 김해영 선교사(케냐선교사),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온누리교회), 김승수 목사(온누리교회), 강명식(CCM 아티스트), 박지범(남미위임장시자), 이성호(문미앤 대표), 강동균(어노인팅예배인도자), 임은미

선교사(CAM대학선교회), 신갈렘 선교사(BTC 대표), 김홍주 목사(온누리교회), 송준기(홍대 Waychurch)가 주옥같은 메시지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회복과 치유를 선물한다. 마커스(MarkersMinistry), 지미선(CCM 가수), 주리(CCM 가수), 곽윤찬(재즈피아니스트), 김신의(뮤지컬배우)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countdown.or.kr)으로만 가능하다. 회비는 6월 16일까지 3만 5천원, 당일 접수는 4만 원이다. 현재까지(6월 5일 기준) 3013명이 등록했다.

문의: 02-3215-3761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9-29805(예금주: 온누리교회선교대회)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교회의 메르스 예방 및 대처 지침

1. 체육대회, 야유회 등 야외모임 당분간 취소
2. 메르스 발병 의심지역 순모임은 당분간 취소
3. 6월 성찬식은 쉽니다.
4.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5. 손소독제 사용
6.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 있는 성도는 CGNTV로 예배
7.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 가능
8. 예배 전후 창문 열어 예배 공간 환기
9. 차세대 예배에서 안전교육 실시
10. 차세대 예배실에 손소독제 비치, 입장할 때 반드시 소독

6~8월 러빙유 캠페인 '이웃 찾아가기'

가급적 공동체와 가까운 지역에서 대상 선정

6~8월 러빙유 캠페인(Loving U) 주제는 '이웃 찾아가기'다.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나 기관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일회성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

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찾아가 섬길 이웃은 순식구들(다락방, 개인도 가능)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순모임에서 의견을 나누고 선정하면 된다. 가급적 공동체가 속

한 지역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소외된 이웃이나 기관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체, 사회선교 사역자,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다.

사회선교본부는 성도들에게 "이웃 찾아가기 캠페인 사진이나 동영상, 후기 등을 이메일(chse0721@gmail.com)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2-3215-3434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6월 비전헌금

단기선교 및 여름 아웃리치 지원

6월 14일 국내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단기선교 및 여름 아웃리치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올해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1. 기억 창고를 걷다
2. 그 발자국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억 창고를 걷다

CGNTV,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지를 곱씹다



CGNTV가 제작한 내한 선교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 블랙마운틴.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만을 지켜주소서”

13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믿음 하나로 영적 불모지인 조선 땅을 밟은 미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G 언더우드(1859~1916년)의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은 이 땅을 밟은 지 42년만인 1907년에 쓴 것이지만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 선교사들의 애잔한 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1984년까지 내한 선교사 2,956명

1884년에 처음 내한한 미국 의료선교사 호러스 N 알렌(1858~1932년)은 1908년 “지금 조선에서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알렌, 언더우드, 헨리 G 아펜젤러(1858~1902년) 선교사 이래 1984년까지 내한한 선교사는 2,956명(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내한 선교사 총람’ 자료). 그중 1945년 해방 이전까지 내한한 선교사 수는 1,529명, 출신지는 미국(1,059명, 69.3%), 영국(199명, 13.0%), 캐나다(98명, 6.4%), 호주(85명, 5.6%) 순이었다. 국적 불명인 선교사는 88명, 5.7%에 달했다. 1,529명 가운데 여성 선교사가 1,114명으로 72%를 넘었다.

내한 선교사들은 의료, 복지, 교육(일반학교, 성경학교), 성경번역, 연합사역 등을 통해 한반도 곳곳에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돼주었다. 특히 이들은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해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이 정책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제안에 의해 1888

년에 미국 북감리회와 미 북장로교 사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 이후 1882년 1월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사이에 선교지 분할 협정이 체결되고 그해 6월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들 사이에서 선교지 분할 협정 초안이 작성됐다. 최종 선교지 분할 협정은 1908년 9월 장로교(미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와 감리교(미 북감리회, 남감리회)간 조인식을 통해 인준됐다.

협정 초안은 다음과 같았다. ‘인구 5,000명 이상 도시와 읍들은 공동으로 선교한다. 5,000명 미만의 읍은 이미 선교를 시작한 선교회가 감당하고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타 선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선교가 시작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각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단으로 옮길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만 교회 담당자(담임목사)의 이명서가 없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 교회의 권징에 대해 상호 존중한다. 섬기고 있는 당사지의 이명서가 없을 경우 다른 선교회는 모든 사역분야의 조사, 학생, 교사, 조력자들을 영입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사제들은 무료로 주지 않고 팔아야 하며 가격이 균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 북장로교는 평안남·북도, 경상북도, 황해도와 충청북도 일부, 미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일부와 제주도, 호주장로교는 경상남도, 캐나다장로교는 함경남·북도, 미 북감리회는 충청남·북도,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충북 강원도 일부, 미 남감리회는 원산 송도(개성) 춘천 등 함경남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 등에서 활동하게 됐다. 서울, 평양, 원산만 2개 이상 선교회가 공동으로 담당했다. 침례교 성경교 구세군 성공회 등은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이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얼마나 영혼 구령에 집중하고 싶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해방 후 교회분열의 원인이 됐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오지만 당시엔 최적의 선교방식이었다.

내한 선교사 2,956명과 그의 후손들

내한한 선교사 2,956명과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같은 궁금증을 갖고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특별 선교다큐 ‘블랙마운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CGNTV 실행위원장이었던 한 장로의 후원을 받아 기획하고 미국과 국내 촬영을 거쳐 지난 4월 5일 첫 방송을 내보내게 됐다.

현재까지 CGNTV가 파악한 미국 출신 선교사들과 후손들은 캘리포니아, 캔터키,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플로리다, 버지니아, 델라웨어 등 여러 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중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마운틴은 우리나라 호남지역에서 사역했던 미 남장로교 선교사와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CGNTV 제작진은 스탠 토플, 미아 토플 선교사, 둘째 딸 시슬 토플, 존 윌슨 선교사, 로버트 M 윌슨 선교사의 아들, 로이스 린튼 선교사와 휴 린튼 선교사의 아내, 그의 셋째 아들 제임스 린튼, 넷째 아들 앤드류 린튼과 아내 하이디 린튼, 로버트 K 로빈슨 선교사의 아들 로버트 로빈슨 등을 만났다.

‘검정고무신 선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휴 린튼은 신사침배를 거부해 추방당하기도 한 윌리엄 린튼(1891~1960년) 선교사의 아들이다. 그는 로이스 린튼 선교사와 순전에 결핵진료소와 요양원을 세우고 안기창 목사와 등대선교회를 설립한 뒤 순회전도로 600여 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교회를 지을 자재를 들고 나선 길에 술 취한 버스 운전사의 실수로 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가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섯째 아들인 인요한(존 린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구급차를 계발하게 됐다고 한다. 윌리엄 린튼은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한남대 설립을 진두지휘하고 초대 총장으로 활동하며 인재 양성에 힘썼다. 윌리엄 린튼의 장인은 1885

년에 내한, 광주 수피아여고 등을 세운 유진 벨(1868~1925년) 선교사다.

휴 린튼의 둘째 아들인 스티브 린튼은 남북한 윤리 및 도덕 교과서 비교연구로 미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4년에 유진 벨재단을 설립해 북한 결핵 퇴치에 힘쓰고 있다. 하이디 린튼은 의료, 식량, 비상구호품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CFK(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FK는 북한 최초의 결핵연구소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임스 린튼은 ‘웰스프링(WellSpring)’ 재단을 설립해 북한에서 우물개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한국명 ‘도성대’로 널리 알려진 스탠 토플 선교사는 정형외과 의사선교사로서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애양원에서 근무하면서 한센인과 소아마비후유증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힘썼다. 미아 토플 선교사는 노르웨이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한국에 온 뒤 스탠 토플 선교사와 결혼해 소아과와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이들 부부는 유경운 박사에게 후임을 맡긴 뒤 케냐 선교사로 떠나 20여 년간 의료사역을 이어갔다. 이들의 자녀 중 시슬 토플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아자...”를 부를 수 있을 정도 한국어를 잊지 않았으며 의사로서 현재 북한 사역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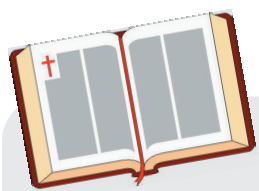
로버트 M 윌슨 선교사(1880~1963년)는 1908년부터 광주기독교병원 2대 원장으로 섬기다가 1926년 한센인을 위한 진료소를 만들어 여수 애양원을 세웠다. 윌슨 선교사의 사택의 경우 서양식 주택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89년에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아내인 베시 K 윌슨(1880~1962년) 선교사는 성경을 가르쳤다. 현재 97세인 존 윌슨 선교사는 그의 아들로 1960년대 전주예수병원 소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수 소독, 화장실 개조, 결핵 퇴치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운동을 펼쳤다. 현역을 은퇴한 뒤에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했다.

의학박사였던 로버트 K 로빈슨(1919~1988년) 선교사는 고아와 청소년 장학 활동을 하면서 전국 순회 무료진료를 통해 간질 환자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건축가인 아들 로버트 로빈슨은 CFK 대표이사로서 북한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블랙마운틴에서 만난 선교사들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국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다. 제임스 린튼은 유창한 한국어와 묵직한 음성 톤으로 취재진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하면 떠오른 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언급할 수 있었다. 한국 라면과 김치를 잊지 않고 즐겨먹는 선교사들, 한국에서 쓰던 물건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선교사들, 한국에 이어 북한까지 돕는데 주저함이 없는 선교사 자녀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야 할지를 곱씹어보게 본다. CGNTV는 ‘잊혀진 시간’과 ‘잊혀진 사람들’을 복원해 복음만이 세상의 참된 희망임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CGNTV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

*다시보기 www.CGNTV.net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영혼의 어두운 밤

욥 42:1~6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16세기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은 수도원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자 수도원 개혁운동을 반대했던 수도사들이 그를 납치해 톨레도 수도원이라는 곳에 11개월 동안 감금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깊은 기도도 했습니다. 그가 당시 경험한 영적체험을 시로 기록했는데 그 시 해설서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책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독방에 갇혀 억울하고, 고생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독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환영하고 싶은 일, 축복 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만 계속 생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질까요. 물론 긍정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만 있는 사람은 욥의 고난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과 죄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의 놀라운 믿음과 고난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만한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축복도 받았습니다. 경건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욥을 사탄이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축복 때문이다. 만약 그 축복이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욥이 자신이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

의 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음껏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은 세 단계 고난을 겪었습니다. 첫째, 하루 만에 모든 소유를 상실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자녀와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은 스바 사람의 공격에 탈취 당했고, 양떼와 종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낙타와 종들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죽임 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태풍이 욥에게 불어 닥쳤습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욥 1:20-22).

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체념하지도, 운명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역지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가 만약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만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시험에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욥은 역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난 받으면 안 되는 사람”

둘째, 이번에는 욥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욥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몸이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욥의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그늘 아래서 침묵하며 인내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번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욥 2:10).

두 번째 고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시험은 오랜 기간 동안 압박해오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고통과 고난은 견딜 수 있지만 지속적인 압박과 고통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지만 욥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깊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욥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영혼의 만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경건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그들은 욥의 마음과 정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을 요약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법칙을 통해 욥을 압박했습니다. 욥은 지지 않고 동일한 논리로 항변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결하게 살았는지를 항변했습니다. 욥의 대표적인 말 한 구절을 읽으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마음이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욥 27:5-6).

자신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친구가 욥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말하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욥의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도 엘리후가 말한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묻고, 대

답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이유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2-3절).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고, 계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무지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에 능동적으로 삽니다. 보고, 판단하고, 계획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수동적으로 바깥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도 창조하셨고, 어두움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빛을 못 봐도 파괴되지만, 어둠 속에 들어가지 못해도 파괴됩니다. 조명을 인간이 발명한 획기적인 발명품이라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인류가 하나님과 역행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해할 때 어렵게 만들고, 어둠속에서 쉬어야 할 때 불을 밝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가 화려한 네온사인 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두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낮을 통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하게 하고, 밤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밤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쉼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3면에 계속〉

통일한국은 ‘21세기

호국보훈의 달 기획 ‘왜 복음통일인가’

1. 통일한국은 ‘21세기 동방의 예루살렘’
2. 북한 실정 이해하기
3. 독일의 통일 사례로 비춰본 우리나라의 통일 준비
4.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자세



이경훈 장로
(이천선교 북한사역담당)

정치, 경제, 군사, 국제관계로 통일 불가능 ... 복음만이 해답
올해는 복음통일 준비하는 원년 ... 북한을 배우고, 탈북민 섬김부터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됐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벌써 분단 70주년이나 됐다. 두 세대가 훌쩍 지났다. 한민족이던 남북한의 괴리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다. 정말 통일은 우리에게 대박일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통일과 통일을 위해 교회와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은 ‘심판과 용서가 반복되는 사랑과 은혜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이스라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심판-회개-용서-구원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다. 우리도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 암흑기의 끝자락이었던 조선 말, 하나님은 이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흐름에 둔감하던 조선이 대외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도움을 줬다. 31만세운동의 주역도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는 절망하던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1945년 일제 35년의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 (대한민국 첫 국회) 첫날, 12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민생의 복락을 주시면 우리가 북한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건국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국호속기록 1장에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

북한의 고통과 남한의 무관심

우리나라 기독교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왔다. 북한은 우리나라 기독교 발상지 역할을 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공산당의 탄압을 받던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대거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남한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70~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남한의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 오랜 식민통치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답습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불어 교회도 세속화되었고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안타깝다.

북한의 상황은 더욱 비참하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암흑 상태다. 1990년대 중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면서 무려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 같은 민족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애도해하지도 않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탈북민이 급증했다. 중국 등 제3국에 20~30만 명의 탈북자들이 유리방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 중 60~70%가 여성이다. 그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살아오고 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꽃제비로 살고 있다. 남한에는 약 28000명의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다수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 3000명 이상이 청소년인데 거의 부모가 없는 상태로 쉼터에 거거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난민들의 소식을 들으면 무척 가슴아파한다.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는 끔찍한 북한의 소식들은 마치 비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 양치기소년 이야기로 간주하고 금세 잊는다. 오랜 분단상태가 만든 고질병이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

고질병이 된 남과 북의 문제는 절대로 정치나 경제논리, 군사력, 국제관계로 해결할 수 없다. 통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최대 영적전쟁이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다.



2013년 ‘올어나 한반도여’ 집회.

북한의 현실을 외면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통일을 위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북한 동포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요즘 한국교회는 본질과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에 실망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복음전파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심지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걱정하며 금식기도를 한다는 말도 들려올 정도다.

교황한 사탄의 전략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한국교회들이 연합해 전국적인 금식기도 및 회개운동과 복음통일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땅을 향해 담대하게 영적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오직 복음통일만이 한국교회의 살 길이자 나아가야 할 길이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2300만 북한 동포들이 70년간 우상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마른 뼈같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땅 끝은 바로 북한 땅이다. 우상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같은 약속의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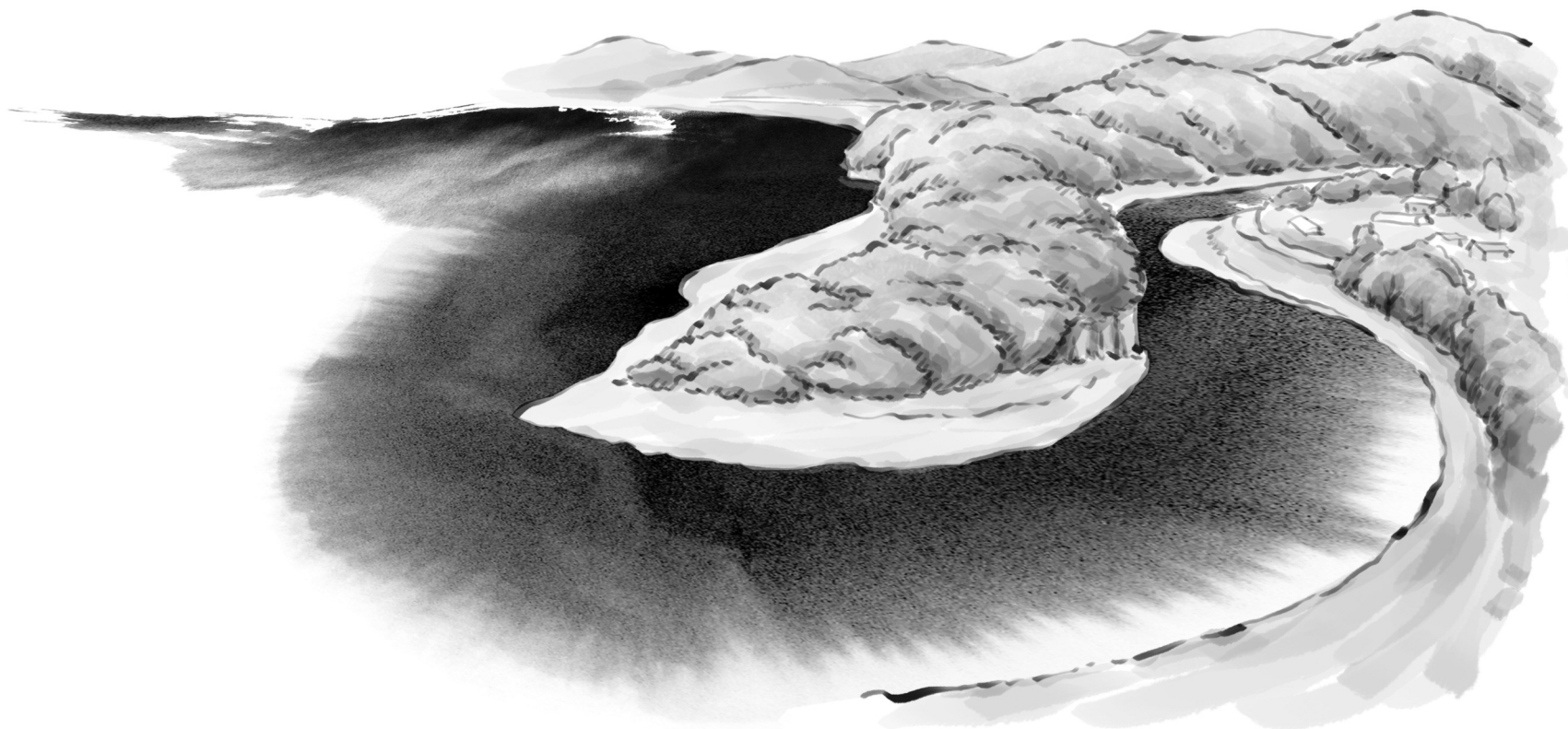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결음씩 나아갔듯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복음통일을 위해 담대하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다.

통일의 가장 큰 유익은 ‘복음 전파’

통일 비용이 176조가 든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통일 후 얻을 이익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다. 한반도가 통일 되면 248조나 되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됐다(2010년 현대개발연구원 조사).

동방의 예루살렘'



통일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노력

온누리교회는 복음통일을 위해 타 교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도모임을 필두로 탈북민 예배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탈북민 지원사업 등 다양하다. 복음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온누리교회의 노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업	종류	지역	시간 및 장소	문의
기도 모임	북한중보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월 오후 7시30분 선교관 402호	송웅주 형제 010-8591-8236
		남양주	매주 주일 오후 2시 성가대실	김미성 권사 010-2770-2799
		대전	매주 토 새벽기도 후 기도실	김동욱 집사 010-3526-4754
		인천	매월 둘째 넷째 토 오전 7시30분	이희승 팀장 010-2246-0369
		부천	매주 수 오후 1시30분 2층 새가족실	032-322-9686
교육 프로그램	북한선교학교	서빙고	연 2회(서빙고, 양재), 7주 과정	이창은 총무 010-2335-6055
	북한선교브릿지		매월 첫째 월 오후 7시30분 신관 402호	
예배 공동체	하나공동체	양재	매주일 오후 2시 JDS홀	김광일 총무 010-8538-6923
	한터공동체	강서구	매주일 오전 10시 한터 청산빌딩 5층	송웅주 형제 010-8591-8236
탈북민지원	하나원 방문자들이 사업	안성 화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 예배와 순모임,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다.	민경일 집사 010-5476-1406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도 그렇다. 통일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남한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포화상태 내지 불황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통일이 되어 북한이 열리게 되면 당장 사람이 필요해진다. 교사 5만 명, 공무원 5만 명 정도 필요해진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최소 30년 동안 청년실업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석탄,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금, 우라늄, 석유, 희토류 등 지하자원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다. 무려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됐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쟁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북한 주민의 식량 지원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다. 수매가격 조절을 위해 농협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썩어버리는 쌀이 매년 30만 톤 정도 된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이 쌀을 계속 보내주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과 남한의 교역 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교

역 규모의 2배다. 주로 배를 이용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육로로 갈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교역이 확산된다.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一帶一路, 당(육상)과 명(해상)의 실크로드,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대규모 국내외 프로젝트)에 부응해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듯 남북통일이 되면 생산 및 내수를 충족시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가장 큰 유익은 복음전파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로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북한 땅 방방곡곡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 최대 선교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21세기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정세 불안이나 급변 사태가 발

생해 탈북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몰려올 경우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들을 수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일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이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의 '월요기도회'에서 시작되었듯 한국 교회는 남북이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2만 8천 탈북민 전도와 사역의 중요성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숫자가 약 28,000명 정도 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통일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이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다.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입국하면 3개월 동안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수료하면 한국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낮은 환경, 남한 사람들의 냉대와 생활고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절망한 탈북민들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제3국행, 재입북을 선택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당액이 이들이 남한으로 올수 있도록 도와준 브로커들에게 지불되고 있어 생계유지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순수하고 정직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신의가 있다. 충성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한국의 성도들보다 더 뜨겁게 신앙 생활을 한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이다. 탈북민이 복음을 들고 고향에 돌아가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없다.

복음통일을 위한 교회의 노력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다. 실제로 통일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였다. 시대 상황이 변할 때마다 대책 없이 방관만 해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어떤 장벽도 뚫고 반드시 북한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부터 가져야 한다. 거룩한 통일한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통일이 무엇인지, 통일을 위해 교회와 크리스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

우선 작게라도 통일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한으로 보내주시는 탈북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아할 것이다. 낮은 남한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를 전하는 것이 어떨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이다. 북한 복음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에 동참해 보는 것도 권한다. 북한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분단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캠페션이 주관하는 '2015 북한사역서밋' 행사가 열린다. 전국의 교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다. 온누리교회 전체 교역자들과 북한선교사역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을 위한 교회의 시대적 역할이 크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 더 많은 성도들이 북한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빛이 비추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사회선교팀과 공동체가 손잡고 이웃 사랑 실천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과 공동체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누리공동체의 헌신이 눈에 띈다.

지난달 30일(토) 수원 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 소망1, 3순 사랑1순 성도들이 참사랑학교 장애인 청소년들을 섬겼다. 참사랑학교는 장애인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기관이다.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은 일 년에 네 차례 참사랑학교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참사랑학교 등반대회'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수원 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 성도들과 참사랑학교 청소년들이 '참사랑학교 등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물항기수목원에 모였다. 이날 총 50명이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서누리공동체 성도들과 참사랑학교 청소년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등반하며 하나가 되었다.

김태신 팀장(사회선교팀)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외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집에 있

는 시간이 많다"면서 "이번 등반대회가 장애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야외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했다.

임재남 순장(사랑1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사랑학교를 섬기는 사역에 동참했다. 임순장은 "일 년 전과 비교해 아이들의 모습이 더 밝아져 좋다"면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아이들이 등반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이날 등반대회는 네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참사랑학교 장애인 청소년들의 얼굴에 꽃이 피었다. 이구동성으로 "힘들지만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웃 사랑 실천하는 모범적 교회

수원 온누리교회는 참사랑학교 장애인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다른 공동체에 이어 이번에는 서누리공동체가 헌신했다. 장애인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4월 25일(토)에는 서누리공동체 총성1순과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사역지원팀이 손잡고



용인마라톤대회에 함께한 수원 성도들과 참사랑학교 청소년들.

'2015용인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그 대회에서도 참사랑학교 장애인 청소년들을 섬겼다. 5월 9일(토)에는 참사랑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제과제빵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서누리공동체 총성4순 성도들이 참사랑학교 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과자와 케이크 등을 만들었다. 5월 28일(목)에는 사랑6순이 다른 공동체 순과 함께 춘천소년원 청소년들을 찾아가 세례를 줬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2013년 5월부터 춘천소년원을 꾸준히 섬기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예정이다. 이웃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다. 차명권 목사(사회선교 담당)는 "사회선교와 공동체 연합사역이 확대되어 더 낮은 곳의 실천이 순마다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또 어떤 연합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을 펼쳐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국군통합수도병원 사역 후 한자리에 모인 전도팀.

한 영혼 위해 끝까지

수원 전도팀, 매월 8회 이상 전도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원 온누리교회 전도팀은 매주 두 번씩 전도에 나선다. 교회 인근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전도팀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역은 네 가지다.

첫 번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국군통합수도병원에서 전도하고 있다. 팀원들에게 배정된 병실로 흠어져 두 시간 동안 환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한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고 있다.

두 번째, 매주 목요일 아침에 아주대병원에서 전도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환우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는 시간이다. 아주대병원 전도사역은 매주 14명 이상의 팀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 사역은 조선족 전도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안산M센터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사역이다.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어김없이 국군통합수도병원에서 전도를 했다. 이날도 수원 전도팀원들은 기도로 맺은 귀한 열매를 맛봤다. 국군통합수도병원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군인 환우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전도팀의 방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청년은 마치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뿔 듯이 기뻐하면서 교회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수원 전도팀은 더욱 확고한 믿음과 힘을 얻게 됐다. 여러 곳을 다니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도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수원 전도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명숙 권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지는 기자

알 림

수원 의료팀 봉사

일시: 7/14 오후 2시 교회 출발
(매달 둘째 주일)

장소: 온누리M센터

내용: 의료, 미용봉사

문의: 총무 김태균 집사

(010-9567-6627)

팀장 황영진 집사

(010-7457-0327)

꿈땅 부모교실

말이 통하는 아빠, 마음 알아주는
엄마(비폭력대화)

일시: 6/7-14 매주일 오후 2-4시

장소: 2층 사랑홀

대상: 꿈땅(유년/조동) 부모 및 교사

회비: 1만원

인원: 40명

강사: 김종아 목사(수원 차세대담당)

성경일독학교

일시: 6/7-8/30 매주일 오후 4시

장소: 4층 비전홀

회비: 2만원(교재비 별도)

강사: 김정희 목사

문의: 목회지원실(031-895-6500)

신청: 아이스쿨 접수

“새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교회”

인천,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 개최

지난 30일 여기는 남한산성 묵상의 집. 숲이 우거진 뜰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새가족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그야말로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새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고, 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천국잔치였다.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현장에 동행했다.

/ 김미림 기자 sarangmi87@gmail.com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 그만큼 교회에서 새가족의 존재가 귀하고 중요하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누구보다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를 증명하는 축제가 지난 30일 개최되었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준비한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는 개인과 가족, 교회의 영적인 연합이 목표다. 그래서 주제를 ‘My Life, My Family, My Church’로 정했다. 기존 만남의 잔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힘을 위한 사이닝글로리 프로그램을 결합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더 잘 적응하고, 더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축제였다.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를 위해 밤잠까지 설쳤다. 축제 하루 전인 29일 새벽부터 중보기도, 행사 준비에 몰입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새가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사장 분위기가부터 달랐다. 나비넥타이를 맨 안 내담원들이 건네는 환영인사에 새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에는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 등 47명이 참석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공동체 한만석, 이하기 부

부는 서울 목동에서 인천 온누리교회에 온 새가족이다. 이날 극찬한 대접을 받은 이하기 성도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면서 새가족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열어준 인천 온누리교회에 감사인사를 했다.

새가족들을 위한 강의도 이어졌다. 김기영 장로가 My Life, 이기복 목사가 My Family, 박성은 목사가 My Church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진 성령집회에서는 이승배 장로가 간증했고, 서경남 목사는 ‘My Spirit’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하이라이트 세수식과 성찬식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세수식과 성찬식이었다. 맑게 갠 오후, 새가족들이 밖에서 기도모임을 하는 동안 준비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새가족들이 조별 기도모임을 끝내자 하얀 식탁 위에 투명한 물그릇과 수건,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었다. 세수식과 성찬식이 거행됐다. 세수식은 깨끗함과 거룩함을 의미한다. 새가족들이 한 줄로 앉아 세수식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서경남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



화관을 쓴 새가족들과 함께 한 인천 온누리교회.



세수식을 하기위해 기도하고 있는 새가족들.

했다. 아기를 낳고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소정 성도(믿음공동체)는 “인천 온누리교회는 정말 새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교회”라고 말했다.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가 거듭남의 계기가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소정 성도뿐 아니라 다른 새가족들의 마음도 활짝 열렸다. 세수식과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새가족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렸다. 화관을 씌워주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대해 서경남 목사는 “처음 시도한 행사인데 새가족과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새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 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새가족만을 위한 축제를 마치고



/ 최용주 집사 (인천 새가족사역팀장)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온누리교회 새가족 만남의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새가족 만남의 축제는 기존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가지고 있던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사이닝글로리 프로그램을 결합해 탄생시켰다. 쉽고 역동성을 강조하는 행사다.

개인과 가족, 교회의 영적인 연합이 목표인 이번 축제의 주제는 ‘My Life, My Family, My Church’였다. 인천 온누리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온누리교회와 공동체를 알고, 지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서경남 목사의 아이디어와 새가족팀이 연합해 만든 축제였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새가족팀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새

가족들의 참여였다. 감사하게도 많은 새가족들이 참석했다. 분주한 삶을 살면서 교회행사에 온전히 하루를 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참 감사했다.

이윤재 목사님과 송동섭 장로님이 함께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눠 행사 준비를 했다. 식사준비팀, 데코팀, 안내팀 등 14명의 새가족팀원들도 각자의 은사에 맞춰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유선옥 권사와 정완영 다락방장 부부는 우리를 돕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정말 축제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긴 사역은 흔치 않았다.

하나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사람

들과 함께 하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참해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주셨다.

행사 일주일 전,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해 사역준비에서 한 발 물러나야 했다. 그동안 우리 부부의 빈자리를 메우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사역팀의 헌신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어린이처럼 즐거워하는 새가족들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 세수식과 성찬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새가족팀은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 8주간의 등록과정 이후에는 새가족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어 좋았다. 그동안 품고 있던 미안함을 갚는 시간이었다.

새가족들이 만남의 잔치를 통해 교회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신앙생활과 공동체, 순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줘야 한다. 뜻 깊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과 인천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 행사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해 준 인천 온누리교회 새가족사역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온누리복지재단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60+행복나눔 프로젝트

‘배우Go! 즐기Go! 나누Go!’

‘新노년문화’ 정착 프로젝트 ... 서울시 거주 60대 대상
나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해외에서 나눔 실천 기회 제공

용산공동체 조모 성도는 요즘 고민이 많다.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꿈꿨던 늦잠도 늘어 지게 자보고, 여행도 실패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다.

양재공동체 송 모 성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아직 기운이 넘친다. 체감하기로는 젊은 시절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는 오랜 기간 갖고 닦은 기술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없다. 마땅히 알려주는 곳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사회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청춘 시니어’로 불리는 젊은 노년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설계하고 영위하느냐다.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기를 위하여

여기 젊은 시니어들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줄 속 시원한 프로그램이 있다. 온누리복지재단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新노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60+행복나눔 프로젝트 ‘배우Go! 즐기Go! 나누Go!’ 가 바로 그것이다.

60+행복나눔 프로젝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대 청춘 시니어들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나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존경받는 시니어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다. 이 프로젝트는 6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거주하는 60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0+행복나눔 프로젝트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배우Go’다. 60대 청춘 시니어들이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나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도록 돕는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커리어 관리, 나의 소통법),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세대공감, 다양한 시니어의 삶 들여다보기, 세상 들여다보기), 새로운 여행을 향하여(행사초청 특강)를 주제로 8회기 동안 진행된다.

2단계는 ‘즐기Go’다. 60대 청춘 시니어들이 직

접 지역사회로 나가 관심 분야를 체험하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3단계는 ‘나누Go’다. 지경을 넓혀 나눔 실천 영역을 해외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기 해외봉사를 간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은 “60+행복나눔 프로젝트는 시니어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해외에서 주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기,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수하는 존경받는 노년을 살고 싶은 온누리교회 청춘 시니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가문의: 02-794-6100, 070-4340-250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칼럼 박준기 관장(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하면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노인을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력한 존재로 치부하던 과거에서 비롯된 사회적 편견이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 시키고, 갈렙은 85세에 “아직 내가 강건하고 힘이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을 기점으로 얻게 되었다. 성경속의 두 인물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80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이제는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들 스스로가 ‘60대는 노인이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인의 기준을 70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노인들은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나는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의 저자 한혜경 교수는 은퇴 등의 단어를 떠올리면 돈부터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마음이 자녀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부모의 의존성 역시 배려야 할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나이 들에 대한 지나친 불안이나 걱정도 노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대신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류, 이웃에 대한 관심과 투자, 교육, 일, 놀이가 적절히 통합된 일상을 사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등이 100세 시대에 노인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안일, 자원봉사도 일이라고 말하는 한교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생각

해보자. 은퇴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로 60대에 은퇴한다 할지라도 40년의 수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노인들이 의로운 삶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동력, 시간, 기술, 지식 등 여러 형태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도와야 하는 것

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다. 특히 배움의 학식도 있고 사회적 활동도 왕성했던 젊은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노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노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60+행복나눔 프로젝트 - ‘배우Go! 즐기Go! 나누Go!’ 가 바로 그것이다.

내비의 날갯짓 한 번이 지구 건너편 태풍을 만드는 내비효과처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도하는 젊은 60대를 위한 이 프로젝트가 창조적 新(新)노년문화를 이끌어가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新)노년문화 정착시키기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노규석 목사



아랍의 명절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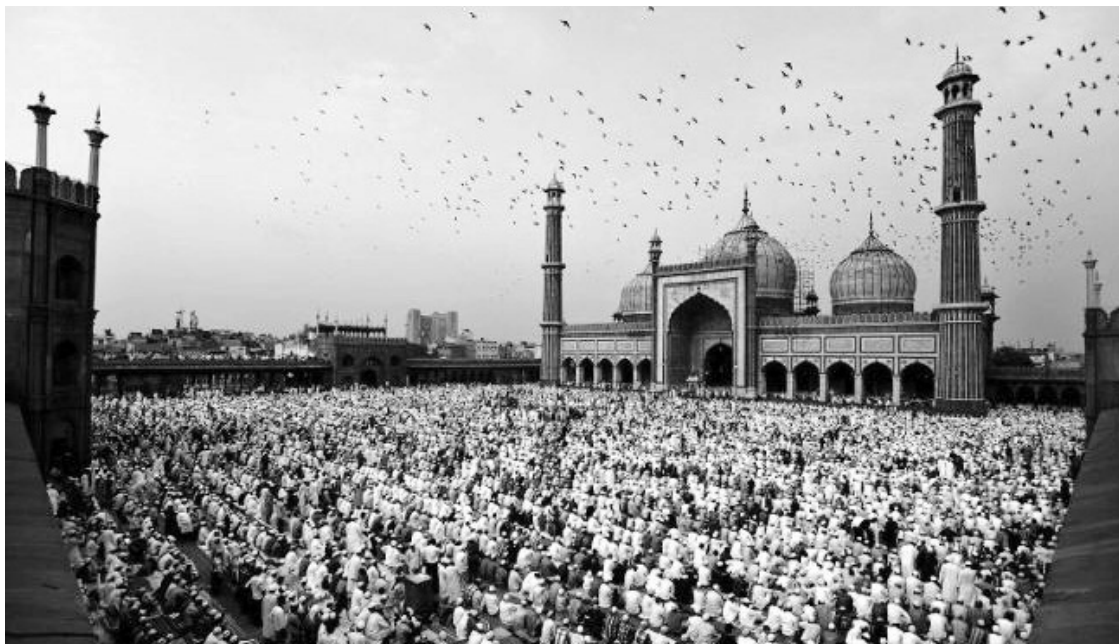
‘권능의 밤’과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한 달간 진행되는 이슬람 세계의 라마단 기간 중 가장 특별한 날은 라마단 27일째인 ‘권능의 밤(Layla tul-Qadr)’ 일 것이다. 이날은 무함마드가 메카의 하라동굴에서 첫 계시를 받은 날로 여겨진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권능의 밤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며 알려껴서 기도를 잘 들어준다고 믿는다. 그러한 믿음 덕분에 그 날은 모든 모스크에서 철야기도가 진행된다.

각 모스크 건물 외벽과 미나렛(기도를 알리는 탑)에도 초록색 네온을 환히 켜놓고 밤샘 기도회가 진행된다. 마을마다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와 무슬림들의 기도소리가 가득하다.

평상시 모스크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던 무슬림들도 이 날만큼은 축복과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권능의 밤 철야기도에 출석한다.

‘권능의 밤’은 아랍 기독교인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영적으로 힘든 밤이다. 간혹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아랍 교회들을 향해 과격할 일을 벌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영적 놀림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권능의 밤에는 아랍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마단이 끝나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드 알 피트르’ 축제가 열린다.

라마단의 끝, 3일간의 연휴

라마단은 약 30일로 마차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초승달 모양을 보고 라마단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기에 그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라마단이 끝나면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축제는 끝났다는 의미)’라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진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지친 무슬림들이 연휴를 보내며 일가친척을 만난다.

이드 알 피트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무슬림들은 라마단의 금식을 고행이라기보다 이슬람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축제라고 보고 있다. 물론 라마단 기간이 해가 긴 7-8월에 진행될 경우에는 고행이 틀림없다. 그러나 라마단 금식을 광계로 낮 시간에

쉬고 밤에 활동을 하면서 만찬을 즐기기에 무슬림들에게 라마단은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3일간 진행되는 이드 알 피트르 기간에는 모든 가족이 새 옷을 준비해 입고 친척집을 방문해 인사를 나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의 넉넉한 인심을 볼 수 있다. 친척뿐 아니라 이웃집도 방문해서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대접한다. 이웃 간의 정을 나눈다. 이러한 풍경은 우리나라의 설날과 유사하다.

라마단은 금식뿐 아니라, 권능의 밤과 이드 알 피트르를 통해 무슬림들을 이슬람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영적 행사로 진행된다. 이러한 라마단의 위력을 알기에 1982년 이집트에서 열린 중동지역 기독교사목자모임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을 위한 30

일 기도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25명의 중동지역 사역자들과 함께 시작한 이 기도운동이 오늘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약 3천만 명이 함께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세계적인 기도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기도운동 덕분에인지 라마단 기간에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금년 라마단 기간(6월 18일~7월 17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www.30prayer.org)’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참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목회칼럼 권용갑 목사(강동A공동체)

좋은 하나님과 숨어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읽고



문어체로는 쓰이지 않고 구어체로 쓰이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런 고백과 표현 중에서 가장 잘 들리는 말이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것을 준다’는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더 자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돌릴 때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삶의 일부다.

신간도서는 아니지만 김영봉 목사가 쓴 여러 책들 중에서 〈숨어계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 책에는 이

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 나타난 숨어계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용서와 사랑, 참된 체현, 고난, 믿음 등을 새로운 감동과 함께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2008년에 출판된 이 책은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의 주된 대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영화 밀양은 개봉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이 영화가 반기독교 영화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화 밀양이 기독교인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하지만 우리도 그 영화를 거울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컸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받는 고통을 이해하지는 아니기도 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 김영봉 목사는 문화와 성경 사이에서 씨름하며 영화 밀양을 문화적 도구로 선택했다.

이 책에서는 숨어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주제들이 나온다. 책을 읽다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싸움을 하며 고민했던 내용들도 만날 수 있다. 덤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된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받게 하시고,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것, 인정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로 벌어진 고난이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다. 때로 고난의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아 절규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 하나님을 숨어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마리아행전 참가신청 서둘러야

벌써 1,312명 지원 ...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15 마리아행전 큰모임에 참가하려면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벌써 1,312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onnuri.org)이나 교회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이다(6월 14일까지 납부할 경우 2만 원). 행사당일 접수는 없다.

2015년 마리아행전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제로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

사,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이덕주 교수(감리교 신학대학), 이정아 사모(물푸레나무 청소년센터),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하광민 목사(생명나래교회)가 메시지를 전한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검정 하의를 착용해야 한다. 문의: 02-3215-3355

/ 김미림 기자



프리덤스쿨 13기 83명 수료

상처 치유하고 건강한 정체성 발견

정체성 회복 프로그램 프리덤스쿨 13기가 수료했다. 지난달 30일 프리덤스쿨 13기가 10주 과정을 모두 마쳤다. 83명이 수료했다.

프리덤스쿨 13기에는 타교회 성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83명 수료생 중 무려 50명이 타교회 성도였다.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도 다양하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 전남 여수, 전북 군산 등지에서 찾아왔다. 낮은 자존감과 상처, 우울증 등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극복하고 싶어하였다. 프리덤스쿨은 죄와 상처로 만들어진 왜곡된 감정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스쿨이다. 특별한 광고 없이도 매년 조기 마감되는 인기스쿨이다.

문의: 이병국 팀장 010-6275-8005

/ 정현주 기자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김하중 장로 초청
세계관학교 포럼 열려

지난 1일 세계관학교가 김하중 장로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38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김하중 장로는 ‘어떻게 하면 가정과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까?’를 주제로 강의하며 “상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면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 끊어지지 않는다”면서 크리스천이 먼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했다.

이날 포럼장에서 만난 김연진 성도는 “김하중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



강의가 끝난 후 한 성도가 김하중 장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는 방법을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관학교에서는 상반기에는 이슈가 되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하반기

기에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헬로맘 임산부스쿨 수업 모습.

‘해설과 함께하는 성경암송’ 프로그램 실시

헬로맘스쿨, 6월 12일부터 5주 동안

헬로맘스쿨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성경암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5주 동안) 오전 10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만 원이다. 자녀를 데리고 와도 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성경암송 프로그램은 강미향 목사가 ‘언약의 말씀으로 삶을 가꾸라’를 주제로 인도한다. 강목사는 “말씀 구절의 의미를 해설하

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헬로맘스쿨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맘, 임산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임산부스쿨과 출산후스쿨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10-2786-622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차 아웃리치 안전교육 실시

6월 15일 19시30분
양재 온유흔

2차 아웃리치(Outreach) 안전교육이 6월 15일 19시30분 양재 온유흔에서 열린다.

아웃리치 안전교육에서는 국내외 아웃리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 대처법을 가르쳐준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선교담당자, 아웃리치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유관기관 담당자, 국제부 등 각 부서 아웃리치 담당자들은 참석해야 한다. 강사는 김진대 목사(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다.

문의: 02-3215-3208

/ 김현준 기자

‘전도폭발의 밤’ 행사 개최

6월 15일 18시 서빙고 두란노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전도폭발훈련이 ‘전도폭발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6월 15일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오후 6시에 열린다.

전도폭발의 밤 행사는 지난 10년 동안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만나는 자리다. 전도폭발 수료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도폭발의 밤 행사에서는 전도폭발훈련 간증,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

이다.

전도폭발훈련은 성경적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1-4단계 훈련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도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반기 전도폭발훈련은 주간(화)과 저녁(수)로 나뉘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미션 열방연합예배

6월 14일 오전 11시 안산 관산중학교

온누리미션이 열방연합예배를 6월 14일(주일) 오전 11시 안산 관산중학교에서 드린다. 오후 2시부터는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열방연합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설교하고, 남성

합창단과 파워웨이브, 캄보디아예배팀이 특순을 선보인다.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열방연합예배에는 온누리미션 소속 14개 예배공동체 600여 성도들이 참석한다.

정신건강의학 세미나 열린다

6월 7일부터 4주 동안 선교관 101호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 정신건강의학 세미나를 연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우를 이해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열린 강의로 관심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6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매주 일 오전 11시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열린다. 손정훈 목사, 장순우, 전진용, 남윤영 박사가 자연을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6월 7일),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6월 14일), 조울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6월 21일), 정신장애 환자의 사회복

귀와 적응 돕기(6월 28일, 오전 9시~오후 5시)를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한마음정신회복예배에서는 주일 오전 11시30분 예배를 섬겨줄 찬양인도자를 모집하고 있다. 찬양에 열정이 있는 청년예배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한마음정신회복예배는 정신질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예배공동체다. 매주 일 오전 11시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 정지은 기자

제1052호 | 2015년 6월 7일(주일)

■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간증



내 인생을 바꿔놓은 카운트다운

/ 김은정 자매(여호수아공동체)

나는 순장모임을 위해 매주 목요일 양재 온누리 교회에 간다. 매주 맑은 양재 온누리교회 앞마당이 오늘따라 분위기가 다르다. 오늘은 카운트다운 프리워십이 있는 날이다. 사랑을 앞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색색의 음료가 담긴 카운트다운 물병이 축제 분위기를 뿜는다. 하나님이 이번 카운트다운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프리워십 강사로 오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준비하셨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시 37:5).

한 시간 내내 이 말씀만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았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계신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이 우리를 웃기고 또 울렸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비자 문제로 한국에 머물러야 할 때 아이들 교육문제까지 겹쳤다고 한다. 당시 이 선교사님은 가정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걱정하니? 그건 내 영역이야.”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다. 몽골에서 본 구불구불 흐르는 강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하늘 나라 방식은 최단거리인 직선이 아니라는 것이었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은 주변을 푸르게 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중력에 의지해서 흐른다는 메시지였다. 나를 포함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았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그날 밤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밤새도록 나눴다.

나에게 카운트다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년 전 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평생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놓은 뒤였다. 더 이상 꿈도 비전도 없었다. 나는 세상과 교회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 2년 전 카운트다운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큰 결심을 했다. 목사님께 FA 지원을 고민 중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목사님은 내 영적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먼저 여름 아웃리치를 가보라고 권유하셨다. 순모임도 하고, CDC도 하고, 홀리스타 새벽예배도 하면서 무의의였을 때 FA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지금은 순모임도 CDC도 하고 있다. 아웃리치도 가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있다. 리더십으로도 섬기고 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카운트다운 집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까? 카운트다운이 이 시대 무너져가는 청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

■ 리더십 리트릿을 다녀와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룬 것이 더 큰 은혜

/ 임정재 순장(평택 온누리교회)

평택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부부 동반으로 충남 천북 조그마한 항구로 리트릿을 다녀왔다. 김소리 담당목사님을 비롯해 담당장로님, 다락방장님, 순장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쉼을 가졌다. 나는 리더십 리트릿에 처음 참가했다. 선배 리더십들과 함께하는 첫 리트릿이라 그런지 긴장했다. 그래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바다낚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나만 설렌 것이 아니었나보다. SNS 공동체팅방에는 리트릿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다.

드디어 리트릿 당일 오전 7시, 김경돈 다락방장님의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우리는 한 사람당 최소 물고기 50마리 정도를 잡아 현장에서 자연산 회로 만찬을 즐기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가면 좋겠다고 수다를 떨었다. 드디어 충남 천북에 도착했다.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었다. 파도도 잔잔했다. 다들 툄름없이 물 반, 고기 반 일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배를 타고 30여분을 달려 첫 번째 낚시 장소에 도착했다. 미끼를 끼고 바다에 낚싯대를 내려놓았다. 몇 초 후 불행하게도 내 낚싯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시 연결해 바다에 내려놓았는데 또 끊어졌다. 그날 나의 낚시는 그렇게 허무하

게 끝났다. 다른 사람들 낚시는 것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낚시를 했다. 몇몇 분이 물고기 몇 마리 잡은 것이 다였다. 모두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의아해했다. 그나마 선장님이 잡은 초대형 광어회와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다. 우리들은 오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낚시에 열중했다. 항구로 돌아와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 약 20마리 정도 되었다. 한 사람당 50마리씩 잡았던 처음의 호기가 무색해진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즐거웠다.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아 아쉬웠지만, 잡은 물고기로도 푸짐한 만찬을 즐길 수 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서로 즐겁게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더 큰 주님의 은혜다.

벌써부터 다음 리더십 리트릿은 어디로 갈지 기대된다. 즐거운 리트릿을 준비해준 김소리 목사님과 김명중 장로님, 유승곤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쉽게 같이 참가하지 못한 아내도 다음에는 꼭 같이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 OBC(Onnuri Bible Club) 요한복음 과정 수료 간증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 정민욱 성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OBC 요한복음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기도의 능력 또한 알게 되었다. 나는 이미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지 10여 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했다.

눈비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아내가 같이 성경공부를 하라고 제안했다. 나는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매일같이 스스로 자책했다. 이래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스쿨을 통해 OBC 요한복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가신청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요한복음 과정은 나에게 시작한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넘치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책하던 내 모습을 버릴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나는 OBC 요한복음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품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 배움과 깨달음 덕분에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주셔서 정말 좋았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꼭 듣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OBC 요한복음 과정을 들을 것을 권하고 싶다.

요한복음 과정을 통해 내 인생의 목표와 척도가 달라졌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만남을 비유하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준 이번 OBC 요한복음 과정이 정말 소중하다.

■ 헬로맘 임신부스쿨 수료 간증



보고 들던 육아와 다른 내용을 배웠다

/ 김영숙 성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기다렸던 아이가 생겨서 정말 기뻐다.

한편으로는 첫 번째 아이를 보내야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다. 태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했다. 그때 온누리신문에 보도된 헬로맘 임신부스쿨에 대한 기사를 봤다. 여러 가지 태교 방법, 출산 준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스쿨이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청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배속의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재인식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아이를 제한하려고 했던 내 생각을 회개했다.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아의 비밀과 임신, 출산 클리닉 강의는 제왕절개수술을 생각하고 있던 내 마음을 바꿨다. 나는 노산이기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제

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낳으라는 권유를 자주 들었다. 그러나 출산의 과정을 의학적,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하면서 힘들더라도 그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헬로맘 임신부스쿨에서 그동안 보고, 들던 육아방식과는 다른 내용들을 배웠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기와 엄마 모두가 덜 힘들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헬로맘 임신부스쿨에서 배운 내용들을 잊지 않고 적용할 것이다.

강의를 마치고 목사님의 인도로 배 위에 손을 얹고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잠깐이지만 남편과 함께 태중의 아기를 향한 기도문과 시편을 읽어줬다. 그 시간들은 그야말로 복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이와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다.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강사님들과 스쿨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강미향 목사님, 스태프들, 둘째 임신으로 힘드셨을 텐데 조원들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 조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송일섭 장로(전도폭발)



LOVING

6~8월 러빙유 캠페인 '이웃 찾아가기'

전도폭발의 밤을 준비하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를 들려주셨다. 줄면서 설교를 듣던 중에 '복음을 들고 가라(Go)'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하셨다.

선교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일이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그렇게 선교지로 떠난 것이 어언 20년이 지났다고 하셨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정작 영혼구원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실망했다고 했다.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 고국에 돌아와 우연한 기회에 온누리교회 전도폭발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 전도폭발훈련에서 영혼 구원에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다. 그 고백을 듣는 내 마음이 숙연해졌다.

온누리교회는 10년 전 전도폭발을 시작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의 사명이고,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훈련된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

전도폭발훈련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4단계까지 13주씩 훈련이 진행된다. 결코 짧은 훈련기간이 아니지만 효과는 놀랍다.

거듭되는 전도 훈련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전문 암송을 통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삶에 녹아든다.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

전도폭발훈련은 결국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각자의 처소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수행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준다. 성숙과 성화과정을 경험하는 장(場)이다.

전도폭발훈련이 1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 월요일 저녁 6시 '전도폭발의 밤' 행사를 연다.

지난 10년 동안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흠어져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백 명의 수료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전도폭발이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 28장을 써 내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발맞춰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앞으로 전도폭발이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구가 되자!

'낮은곳더낮은곳으로'를 표어로 2015년을 시작 한지 벌써 반년 가까이 되었다.

교회가 먼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 4월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5월에는 개인집 현대하기 캠페인을 벌여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감동을 줬다. 온누리교회의 저력과 하나 됨을 보여주었다. 물론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벌이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삶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폭은 분명 보다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6월부터 8월까지 '이웃 찾아가기' 캠페인을 하고자 한다. '이웃 찾아가기'라는 말은 참 쉬워 보이지만 그리 만만하지 않다. 오히려 차를 안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낫다. 텀블러를 한 달 동안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쉽다. 이웃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어떤 분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전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00% 동의하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가 소외된 이웃 관심이 필요한 이웃 친구가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웃 찾아가기' 캠페인은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위한 것이 아니다. 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이벤트성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주는 중장기적 캠페인이다. 마음을 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웃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친구가 되려는 것이다.

대상을 선정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대상 선정에 앞서 순식구들(혹은 다락방)이 직접 지역을 탐방하면 좋겠다. 순모임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내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의 이웃을 선정하면 좋겠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식구들(다락방) 식구들이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웃이나 기관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동체, 사회선교 사역자,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은 대화와 나눔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사회자와 수혜자라는 구분을 지지 말아야 한다. 친구가 되어주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식구들이 함께 연합해야 유익한 캠페인이 된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행하자. 문의: chse0721@gmail.com, 02-3215-3434
사회선교본부 홍보팀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사회선교 다문화사역)

유해근 목사님과 질경이 사모님

나섬교회 유해근 목사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분은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에서 피 끓는 설교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분은 이 땅의 나그네요, 이방인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 시력을 잃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유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화개했다.

고난주간 심야예배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갔는데 나처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무려 133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유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재한몽골학교'를 돕겠다고 서명했다. 그 귀한 서명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며칠 전 온누리교회 다문화사역팀이 광진구에 위치한 재한몽골학교에 다녀왔다.

유 목사님의 아내이자 몽골학교 교장선생님인 이강애 사모님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깊은 주름과 백발이 무성한 유 목사님과 달리 사모님은 어린 소녀 같았다. 유 목사님은 사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코스모스'라고 소개했다. 곁에서 그 말씀을 듣던 사모님이 말씀하셨다. "코스모스가 그만 질경이로 변해버렸어요" 청초한 사모님이 왜 질경이가 되셨을까. 유 목사님 둘째 아들

은 2급 정신지체장애인이다. 150여 명이나 되는 몽골학생들도 지도하고 있다. 시력을 잃은 남편의 수발도 들어야 한다. 비전 가득한 사역자 남편이 꿈꾸는 것들을 사모님이 현실로 만들고 계셨다. 그야말로 외우내강 조력자다.

나는 두 분을 보면서 내가 평생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와 닮은 모습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도 2급 발달장애인이다. 내 누님은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밝은미래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다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닮은 점이 또 있다. 누님이 섬기고 있는 몽골 밝은미래학교 학생 수도 재한몽골학교와 같이 150명이다. 누님과 사모님은 또래다. 몽골 밝은미래학교의 청사진이 재한몽골학교에 투영돼 있다. 나는 한국에 잠시 방문한 누님을 재한몽골학교와 연결해드렸다. 올 여름 몽골에서 두 학교가 MOU를 체결한다. 재한몽골학교는 학교운영을 도와주고, 밝은미래학교는 몽골인 선생님들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 목사님은 몽골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연에너지 활용법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다. 학교의 자급자족을 위해 몽골인들이 즐겨먹는 빵을 만드는 공장

도 설치했다.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이 학생들에게 빵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유 목사님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눈앞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셨다.

서울시에서 광장동 금싸라기 땅을 기증해줘 판자촌이었던 몽골학교가 순식간에 최고급 신축 교정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실제 건축과 운영은 전액 후원금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햇빛발전소' 설치도 어느 독지가의 후원으로 받은 진행되었지만 잔금이 문제다. 6월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유 목사님의 강력한 믿음과 헌신을 뒷받침하는 질경이 사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개인적으로도 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 저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한몽골학교의 모든 기도제목이 응답되어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들어가면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둠속에 들어감으로써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피하지 말고, 어둠을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5절).

욥이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욥은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고난을 체험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

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무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한 신앙은 부인할 수 없고, 고백도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귀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을 눈으로 직접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축복된 일, 긍정적인 일, 좋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아쩔 수 없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귀로만 머물던 신앙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느끼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6절).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며 욥에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빨리 찾아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욥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욥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풍요를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경건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영적 교만이나 자기 의라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그 마음

욥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욥은 회복과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결론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욥의 마음과 고백입니다. 욥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욥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아무리 심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겪은 고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이 회개한 이후 사탄은 패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욥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승리의 귀한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죄를 드러내고 더욱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2 : 엘리사, 물의 사람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엘리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7-19장에 등장하고, 21장에 잠시 등장한다. 한편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잠깐 소개되고 난 뒤 열왕기하 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3-6장, 8-9장, 13장까지 총 8장에 걸쳐 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엘리사가 행한 이적의 수가 더 많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 그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왕하 2:9)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이뤄주신 것 같다.

오늘 글의 제목이 ‘엘리사, 물의 사람’이다. 엘리사의 체질이 ‘물’(水)이란 말이 아니다. 엘리사가 물렁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이 물과 관련이 있어서 불인 제목일뿐이다. 흥미롭게도 엘리사는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왕하 3:11)이었다.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당시의 관행을 말하는데, 종이 주인에게 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까이서 수종을 들었다는 말이다.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이적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가르는데 있었다. 그것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후 엘리사는 요단강을 떠나 예리고로 간다. 그곳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예리고는 수질이 나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소

연한다. 이에 엘리사는 ‘물을 고친다’. 예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리고성을 차지한 후 여호수아는 예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수 6:26)고 선언한다. 실제로 아합 시대에 베엘 사람 히엘이 예리고를 건축하려고 터를 쌓자 아들 물을 잃게 된다(왕상 16:34). 예리고는 저주의 성이었다. 그래서 수질도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저주를 풀 사람이 엘리사다. 엘리사는 예리고성의 물 근원에 가서 새 그릇에 담아 온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선포한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왕하 2:21). 엘리사는 열매맺지 못함(혹은 불임)과 죽음으로부터 결실과 생명의 역사를 이뤘다. 이와같은 엘리사의 이적은 모세와 닮았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마침내 ‘마리’에서 발견한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라키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출 15:22-26).

또 다른 이적이 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 왕 메사가 자기를 배신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자 그를 치기 위해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 나간다. 그러나 에돔 광야길로 들어선 그들은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수소문하여 엘리사를 찾아가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한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러면 비록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라고 말이다(왕하 3:17). 엘리사의 물 이적은 황폐와 기근,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기적이었다.

나중에 선지자 에스겔도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데, 그 물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것이다. 아라바는 사해, 즉 소금으로 가득찬 죽음의 바다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은 사해를 살릴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겔 47:9).

‘물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물의 이적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을 암시한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이었다. 또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던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생명수를 마셨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의 사람’으로 살아가자.